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박 해 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어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첨단산업을 창설하여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나가는것이다.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는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현대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을 개척하고 거기에 큰 힘을 넣어 세계적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새 재료기술분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발전하는 공업과 다양하게 진행되는 경제생활은 새 재료에 대한 요구를 보다 높이고, 보다 광범하게 제기하고있다. 새 재료기술분야에서는 이미 리용되던 재료의 물리화학적성능을 고성능화하며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 리용에서 보다 높은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복합기능재료와 지능재료, 특이한 성능을 가진 재료, 생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재료의 연구개발에 힘을 넣어야 한다.

새 에너지기술분야에서는 나노기술을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여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생물에너지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나라의 긴장한 에너지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해양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인것만큼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자면 해양공학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기초해양 및 응용해양기술분야를 개척하는것과 함께 첨단해양기술개발구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 세계적으로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을 남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은 모든 과학기술발전의 기본토대로 된다. 기초과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할수도 없고 새로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할수도 없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은 기초과학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초과학연구에 계속 힘을 넣어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수학연구를 심화시켜 비약이나 파열, 충격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현상들을 해석할수 있는 돌변리론 등 수학의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여야 한다. 자연현상을 원리적으로 해명한 이론에 토대하여 개별적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반복관찰하여 정확한 해답을

줄수 있는 리론물리학과 실험물리학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화학적문제들에 제때에 정확한 해명을 주며 첨단과학기술발전을 화학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야 한다. 생물학의 모든 분야를 다같이 발전시켜 공업과 농업, 보건과 자연환경보호사업에서 제기되는 생물학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기술부문과 단위들에서 최첨단돌파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며 첨단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할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과학기술부문앞에 연구해결하여야 할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실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욕망을 앞세우면서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널어놓지 말고 경제강국건설에서 긴절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된 수준으로 올려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과학기술부문과 단위들에서 최첨단돌파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자기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특색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는것이다.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나가자면 첨단과학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아무리 첨단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현실에 구현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첨단기술이 산업화되어 경제구조가 현대화, 정보화되어야 우리 경제의 기둥이 지식경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우선 첨단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경제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보산업이다.

정보산업에서는 프로그램산업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프로그램산업은 정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유통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정보산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다.

프로그램산업의 발전에서 기본은 우리의 원천프로그램, 우리 식 프로그램조작체계를 개발하고 전면적으로 도입리용하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식의 프로그램조작체계 《붉은별》을 개발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식의 프로그램조작체계를 강력한 보안기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우리 나라의 실정, 조선사람의 특성과 기질에 맞는 표준화된 조작체제로,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조작체제로 더욱더 완성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대외경쟁력이 높은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

정보산업의 물질적토대로 되는 정보설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정보산업의 발전과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요구되는 컴퓨터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자체의 컴퓨터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고 질높은 컴퓨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기본요소의 하나이고 그 핵으로 되는 집적회로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고 컴퓨터생산에서 제기되는 재료문제를 자체로, 혁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의 풍부한 자원에 기초하여 전자공학과 전자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전자재료생산기지를 강화하여 초대규모집적회로공정을 비롯한 최첨단전자요소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생물산업부문에서는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발효공학, 효소공학 등 현대생물공학을 적극 발전시키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농업, 의학, 화학공업, 에너지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이밖에도 새 재료산업, 새 에너지산업, 우주산업부문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기술봉사와 기술무역을 발전시키는데도 힘을 넣어야 한다.

기술봉사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들의 수요에 맞게 해당한 과학기술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통보하여주는 과정이다. 기술봉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기술봉사가관들에서는 수요자들이 의뢰하는 기술문제에 대하여 그 실현가능성과 기술예측, 기술조사, 분석평가 등을 잘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봉사를 요구하는 단위나 개별적근로자들이 제기하는 기술적과제들을 여러가지 형식을 리용하여 완전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기술봉사는 나라들호상간에 진행될 때에는 기술무역의 형식을 취한다.

기술무역은 우리가 개발한 과학기술성과들가운데서 다른 나라에 팔수 있는것은 국제시장에 내다팔고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은 자금과 시간, 로력으로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에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기술무역에서는 최첨단기술제품을 무역거래의 기본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생산기술합작방식에 기초한 무역거래에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연구개발사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독창적인 기술창조으로 지향되도록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첨단을 돌파할 기술을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연구개발단위들을 많이 조직운영하며 특허기술의 양도 또는 리용허가와 같은 특허기술무역도 장려하여야 한다. 기술수출입과 관련된 법규들을 정비완성하고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신규성과 경제적효과성, 재현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한 심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기술무역홈페이지들을 개설하고 기술수출입제안, 설비납입제안, 합영합작제안, 특허기술과 제품에 대한 소개선전을 강화하며 기술무역교섭을 현대적통신수단을 리용하여 신속하게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개발구들을 창설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경제전반을 지식경제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하는 사업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하나로 결합시켜 첨단산업의 창설을 앞당기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이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교육 및 과학연구기능, 첨단제품생산 및 봉사기능 등이 결합된 현

대적인 과학기술산업지구이다. 첨단기술개발구에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기술, 우주기술, 해양기술개발구 등이 속한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할수 있는 지역은 지식자원과 물적자원이 풍부해야 하며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연구력량과 현장의 기술인재를 양성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과 그 려관산업의 기초가 있고 과학기술성과를 산업화할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지역이어야 한다.

첨단기술개발구에서는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기술연구기관, 연구기관들의 현장실험실과 생산기지를 꾸리고 이것을 위주로 하여 첨단기술연구와 도입, 기술보급,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할수 있으며 첨단기술인재를 육성하고 개발구일군들의 기술기능도 높일수 있다.

첨단기술개발구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연구개발하여 도입된 첨단과학기술성과를 전국에 널리 보급하면 경제전반을 최첨단수준으로 올려세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어있는 지구들에 첨단기술개발구들을 창설하는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구에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하는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우리 당이 관심하는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여기에 당적, 국가적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첨단산업건설과 첨단기술개발구 창설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강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